

한국전쟁기 북한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 활동에 관한 연구*

김상범**

1. 머리말
2. 역사 제도적 배경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교육 활동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동원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 후 체제 유지를 위해 선전

* 이 논문은 김상범,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운영구조와 지도 체계를 중심으로」, 『군사』, 제10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의 후속 연구이다. 분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누어 이전 논문은 민주선전실의 '조직', 현 논문은 주로 '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했다. 이러한 이유로 1장과 2장(이론 및 북한 민주선전실의 기원 부분)은 주로 이전 논문을 참고 했음을 밝힌다. 논문을 위해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네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선동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민주선전실의 대(對) 인민 교육과 동원 활동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북중 국경지역까지 퇴각하였던 북한지도부는 조중연합군에 의해 12월 말 이북 지역 대부분을 수복하였다. 두 달 동안의 유엔군과 국군의 북한 지역 점령 시기는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했을 때와 같이 증오와 대립, 복수에 기반한 체제 부정과 기반 말살 과정이었다.

북한이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본 것은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으로 혜택은 받은 농민들과 적지 않은 우당원들이 유엔군과 국군에게 속아 넘어가 반공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노동당의 파괴에 동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군대의 후퇴로 인해 당과 인민들의 전쟁 승리에 대한 의구심과 체제 몰락에 대한 위협을 느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결과였다. 토지소유와 민주개혁을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북한의 당원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강고한 지지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던 김일성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¹⁾

김일성은 이러한 체제 파괴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기존의 당 선전선동과 정치교양사업이 관료주의적,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인민들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하지 못해 그들이 낮은 정치사상과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²⁾

김일성은 패퇴 과정 중 체제 몰락 직전을 경험한 후 교육과 동원을 통한 인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즉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은 더 이상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인민들의 전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1) 임영태 지음·고유환 감수, 『북한 50년사』, 서울: 들녘, 1999, 129쪽.

2)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96쪽.

북한은 패퇴 후 재 수복한 지역에 대해 당에서 458명에 달하는 선전선동원들을 각 도에 파견³⁾하여 ‘리’의 선전망을 개편, 확립하는 차원에서 민주선전실을 정비하는데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⁴⁾ 또한 김일성은 1951년 1월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로!”라는 구호를 통해 중앙당의 능력 있는 많은 간부들을 농촌으로 파견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1만 5천개의 민주선전실을 설치 및 복구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주선전실을 통해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인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선전선동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북 지역 재 수복 후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정치사상 교육과 전쟁 지원 등 교육과 동원을 통해 김일성의 정치적 권위 회복과 체제 정당성 재형성 및 강화, 정치·경제적 기반 재확립함으로써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북한연구학계에서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전쟁을 ‘과정’과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와 ‘전투’로 이해⁶⁾함으로써 전쟁수행의 정당성만을 부각시킨 채, 국가와 군대,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등 전시체제 국가의 지배방식과 사회구조, 행위자들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강했다.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강연 선전사업 강화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4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0월 1일)」, 『1947.7-1951.12 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집』, 316쪽.

4) “군중정치선동사업 강화하여 인민을 전선강화에 조직 동원 - 평북 정주군당단체,” 『로동신문』, 1951년 1월 19일.

5) 김진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농업협동화준비사업이 전후 농업협동화운동발전에서 가지는 역사적의의」, 『력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6쪽.

6)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48쪽.

둘째, 민주선전실이 현재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시기를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가 부족했다. 이들은 민주선전실을 선전선동 관련 ‘기억의 정치공간’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체계, 사업 방법 및 사례, 특히 당, 정부 그리고 인민들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⁷⁾

셋째, 일부 북한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⁸⁾으로 인해 전전기 민주선전실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여 연구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연구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넷째, 사회주의 체제는 ‘조직’과 ‘선전선동’을 통해 운영된다. 기존 북한학계에서는 정치적,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조직’의 운영과 변화

7)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97-139쪽; 김종수, 「북한 주민의 사상교양: 사상교양공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1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169-210쪽; 김영희,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접령지역 선전선동사업」,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6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150-172쪽; 탁민정, 「북한 국가 건설기 농촌 민주선전실의 조직과 활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정명훈, 「전시의 극장, 선동과 공감의 매개체: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159-195쪽.

8) 김일성조차 당시 일부 민주선전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선전실 운영정형을 보면 민주선전실을 꾸려 놓은데 그치고 그것을 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저 회의나 하고 강연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민주선전실에 농민들이 흥미있게 볼 만한 책도 얼마 없습니다. 민주선전실에서 회의나 하고 강연만 하여서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민주선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이도록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위한 중요한 담보」,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27쪽.

를 통해 체제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주목해왔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선동’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통해 북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 문화 분야라는 이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선전선동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 선전선동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데서 기인하는 연구의 피로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자들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직과 선전선동은 사회주의 체제운영원리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학계는 ‘조직’이라는 외눈박이 안경만을 가지고 사회주의 북한을 봐오고 있지는 않는가? 북한 선전선동의 조직 및 역사에 대한 이해, 특히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법, 북한 지도부의 정책과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선전선동은 그냥 인민들을 향한 북한체제의 메아리일 뿐이며 연구에 대한 소홀과 과소평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연구의 시작은 민주선전실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 민주선전실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연구대상의 시기로 설정한다. 한국전쟁 전과 진행 중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전쟁기 인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인식변화를 전쟁승리를 위해 어떻게 재이용하였는지를 당, 정부 그리고 인민들 간의 상호 작용의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문헌은 로동신문이다. 북한 문헌은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소급 해석하는 소위 ‘역사의 현재화’작업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재해석되고, 재 가공된 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당대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며 현재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⁹⁾ 력사과학, 북한관계 사료집,

선전원 등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체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헌에서도 운영 지침, 민주선전실 관련 결정 및 규정, 행정적인 내용들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전쟁기 북한이 패퇴 후 재 수복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이 복구, 재단장 되면서 로동신문에서는 구체적인 민주선전실장의 임명 및 사업 절차, 인적 구성 및 활동, 당과 정부의 지도체계, 민주선전실장 교육 관련 세미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선전실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 인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홍보 사업을 통해 전쟁승리를 위한 교육과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여타 문헌들은 민주선전실 관련 결정 및 규정 등 행정적인 내용들만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로동신문은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의 활동과 인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역사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로동신문이라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간문헌을 활용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북한 지도부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관심이 한국전쟁기에 집중되어,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북한 문헌에서는 민주선전실 사업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도 민주선전실에 대한 활동을 주로 소개,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과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충분치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연장선상에서 로동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민주선전실의 활동에 대해서 자료 부족으로 인해 비판적 분석과 김일성 저작집 및 전

9)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24-26쪽.

쟁기 민주선전실장의 수기 등 타 자료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한계가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전쟁기 민주선전실이 체제 유지 측면에서 전지전능한 기구로 역할을 했다는 ‘논리의 함몰’에 빠질 수 있다는 조언에 귀 기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 역사 제도적 배경

가.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의미

선전선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과 인민대중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형태이다. 사회주의에서 선전(propaganda)은 기존 관념에 새로운 관념을 결합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사상, 관점, 정책 등을 대중들에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 선동(agitation)은 선전을 통해 형성된 관념을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킨다는 뜻으로 대중의 정서,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노선, 목적 등을 잘 수행하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 관철을 위해 행동을 유도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¹⁰⁾

선전은 선동에 비해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론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므로 주로 간부나 당원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¹¹⁾ 선동은 선전을 통해 밝혀진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교양 및 호소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해석,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²⁾ 사회주의 선전과

10) 편집부 엮음, 『선전선동론』, 서울: 지양사, 1989, 20-21쪽.

11) 조선로동당출판사 저,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0-21쪽.

선동은 당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교육하고, 당이 대중들을 사회주의로 교양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임으로써 당과 인민이 하나의 이념과 목표 아래 정치, 경제적으로 단합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선전과 선동은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문화교양 수준을 향상시켜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로 동원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¹³⁾ 사회주의에서는 선전과 선동을 결합한 아지프로(agitprop)¹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당의 정치 노선 관철을 위해 선전선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전선동은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 이요, 국민들은 당과 정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정치의식 및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해 가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것은 선전선동이 당과 인민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며, 당과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기 북한의 선전선동은 인민의 사고와 감정 모두를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선전선동은 당 정책을 지지 및 참여시키기 위해 인민들을 교육, 동원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동(action-oriented)에 기반한다.¹⁵⁾ 당 조직은 선전선동의 조직, 임무, 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며, 전쟁기에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12) 위의 책, 20-21쪽.

13) Wolfgang Deckers,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in Mao Zedong: Origins and Development of a Revolutionary Strategy," (Ph.D. dis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6), p.276.

14) James S. Olson,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Propaganda*(Westport and London: Greenwood Press, 2004), p.5.

15) Marian Leighton, *Soviet Propaganda as A Foreign Policy Tool*(New York: Freedom House, 1991), p.21.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집권초기와 내전기간이었던 1917년 2월 당시 소련 내 반혁명세력과 영국, 프랑스 등 외국세력들이 합세하여 페트로그라드를 위협했을 때 레닌은 주요 도시들의 방어를 위해 인민위원회 결의 및 계획에서 선전선동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 조직의 선전선동사업을 대폭 강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추가 자금도 지원했다.¹⁶⁾ 특히 전쟁 시기 선전선동은 체제, 최고지도자, 인민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행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와 재 수복시기의 선전선동은 권위와 생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전선동은 당과 정부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제시하고 당과 정부의 의도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다.¹⁷⁾ 한국전쟁기 북한은 주민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생명체에 대해 점점 더 강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시켰다. 다시 말해, 당과 인민의 결합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김일성, 체제 복구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설득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선전선동이었다.

전쟁기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는 민주선전실을 통해 인민들과 소통하였다. 김일성은 이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였다. 북한은 민주선전실의 주요 활동인 교육과 동원을 통해 ‘모범의 일반화’를 도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전선동을 구체적인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6) 소련공산당 정치문헌 출판부 저, 도서출판 새물결 역, 『선전선동론』, 서울: 새물결, 1989, 17-18쪽.

17) Suk Young Kim, *Illusive Utopia: Theater, Film, and Everyday Performance in North Korea*(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10), pp.11-12.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동 결과물이었다.¹⁸⁾ 이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이해, 판단, 그리고 참여를 통해 전쟁을 수행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북한에게 선전선동의 전쟁이었으며, 민주선전실은 ‘군인들의 전쟁’을 ‘인민들의 전쟁’으로 전환¹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나. 민주선전실의 기원 : 한국전쟁 이전 조직 및 활동

민주선전실은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내 첫 선거였던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끝난 직후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명 후 존속을 지시한데서 시작되었다.²⁰⁾ 김일성은 당시 공장 및 기업소들에는 노동자들의 교양을 담당하는 노동자구락부가 있으므로, 낙후된 농촌지역 인민들의 교양을 위해 민주선전실을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인민들의 정치사상 및 사회문화적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높은 노인 인구비율과 문맹률로 인해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척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제가 남긴 물질적, 제도적, 사상적, 문화적 유산을 청산의 성공 여부가 새로이 수립될 국가의 정통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²¹⁾ 김일성은 해방 후 낙후된 북한

18) Nicholas Jackson O' Shaughnessy, *Politics and Propaganda: Weapons of Mass Seduction*(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p.4.

19) Allan M. Winkler, *The Politics of Propaganda: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1942-1945*(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8), p.12.

20) 최창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민주선전실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력사과학』, 2호, 1990, 6쪽.

지역 농촌의 정치적 계몽, 경제적 여건의 향상을 위한 대중동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주선전실을 설치하였다. 다시 말해, 초기 민주선전실은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과 애국주의 위주의 ‘인민계몽사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8일 내각 회의 결정 제107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속시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²²⁾ 동월 11월 28일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협소한 선동사업 형식으로부터 근로대중속에서 광범한 선전사업 형식으로 넘어갈’데 대한 결정과 ‘선거선전사업에서 동원되었던 선전원들을 튼튼히 조직하여 재교양시키며,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확보’할 것에 대한 ‘당박사’ 허가이의 지적²³⁾에 따라 각급 당 단체들은 민주선전실 확보사업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당 선전선동부는 농촌의 경우 민주선전실을 가능한 한 20여 호 이상 되는 모든 부락과 1개 리에 2곳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⁴⁾ 민주선전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농촌 지주 소유의 큰 건물, 기존의 선거선전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직접 자금과 자재를 동원해 새로이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947년 6월부터 한 해 동안에 산간 오지마을까지 포함, 전국적으로 4,546개의 민주선전실이 새로 꾸려졌으며, 1948년 4월 당시 7,780개²⁵⁾, 1948년 말에 이르러서는 16,662개로

21) 김재용,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90쪽.

22) 최창명, 위의 글, 6쪽.

23)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21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선전원수책, No.9, 1948.12, 선전선동부. NARA, RG 242, SA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 문서.

24) 위의 글, 30쪽.

폭증하였다.²⁶⁾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 정권 수립기 여타 사회주의 신생국가들보다 선전선동을 통한 계몽사업에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투입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⁷⁾

초기 북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은 각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설치 및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다.²⁸⁾ 당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무급직이었으며, 대체로 토지개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할 받은 열성농민들 중 지역 인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즉, 민주선전실장은 농촌지역 명예직이었다. ‘당원’은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그 외 각 활동 책임자들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었다. 또한 1개의 민주선전실에 배치된 5-7명의 선전원들²⁹⁾도 모두 무급이었다.

인민계몽사업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장식도 중요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 벽보, 선전원 체계도, 영농계획표, 문명퇴치 정형표 등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선전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주선전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선전실장을 비롯해 선전원 책임자, 벽보 책임자, 예술

25) 김일성, 「북조선 정치정세」,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73쪽.

26) 최창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민주선전실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7쪽.

27) Charles K.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66.

28)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07호」, 『북한관계 사료집(1945-1947)』, 제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쪽.

29) ① 민주선전실 책임자 1명, ② 독보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③ 표어, 만화, 벽신문, 속보판, 그래프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문화, 예술, 체육 등이 동호회를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④ 도서 활용과 학습을 지도하는 선전원 1명.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30쪽.

소조 책임자들을 포함한 3-9명의 열성 농민들로 구성되었다.³⁰⁾ 당 문화선전성은 이들 책임자들이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외 다른 임무를 겸임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³¹⁾

각급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의 선전원, 문화인들이 협조하여 민주선전실 내 독보회, 좌담회, 벽보사업, 도서 열람, 씨클 활동 등 정치교양과 선전사업을 담당했다. 독보회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하되, 책임자가 신문기사 중 국내외 정세, 중앙정부 및 각급 인민위원회의 시책 등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 선택하여 10-15분 동안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10분간의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³²⁾ 좌담회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농업기술전습 경험 및 모범 노동자들의 증산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³³⁾ 1947년 말-1948년 초에 4,370회, 1948년 초-1949년 상반기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15,416회가 개최되었다.³⁴⁾

이러한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 형식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졌던 것은 소련의 정치사상과 선진문화 관련 부분이었다. 1945년 11월 북한에 설립된 소비에트 대회문화교류총협회의 지부인 조쏘문화협회와 농촌 지역 말단 행정구역까지 설치된 조쏘반을 주축으로 민주선전실 내 소련 관련 교육 내용을 채울 수 있었다.³⁵⁾

30) 최창명, 위의 글, 7쪽.

31)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57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Item #177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NARA, RG 242, SA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그러나 문화선전성의 이러한 권고는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 후 재수복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32) 위의 글, 62쪽.

33) 위의 글, 63쪽.

34) 최창명, 위의 글, 9쪽.

35)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과 조쏘문화협회는 별개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민주선전실장은 조쏘문화협회 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전 조쏘문화협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우, 「1948-1949년 북한

그러나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씨클 활동 관련 연예오락사업이었다.³⁶⁾ 이것은 초기 운영에 있어서 나이가 다른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 모이게 하여, 민주선전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가장 효율적이며, 쉬운 선전선동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민주선전실은 무지하고 아무생각 없는 젊은 여성들이 노래나 부르러 다니는 곳’이며, 민주선전실을 자주 출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게으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³⁷⁾

설상가상으로 북한 농촌지역 당과 인민위원회 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의 부족으로 인한 선전선동과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지도체계 문제는 일부 민주선전실들을 아예 이용하지 않거나,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되거나, 조 이삭, 강냉이나 말리거나, 심지어는 혼백을 모시는 사당으로 활용되게 방치해 두었던 사례³⁸⁾로 나타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 이전 시기는 농촌지역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만한 능력 있는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등의 인재 부족의 현실과 북한이 당시 인민계몽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전선동사업에 정치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권 수립 초기 이어진 선거, 예를 들어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1947년 2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이어진 각급 단위 인민위원회 선거,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선거, 1949년 3월 30일 지방인민회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127-136쪽을 참고.

36)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70쪽.

37)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구체적이며 진공적인 군중정치사업 전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3일.

38)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70쪽.

의 대의원 선거 등 연이은 선거로 인해 정치성이 강한 선전선동 사업은 대부분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업적을 소개하는 선거 홍보와 투표 격려 부분으로 집중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북한에게는 선거와 투표라는 정치행위 그 자체가 국가의 조직력과 선전선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며, 결국 정권의 정치적 통제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다.³⁹⁾ 다시 말해, 한국전쟁 이전 북한은 선전선동사업을 위한 민주선전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거를 통해 선전선동의 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 방식은 전쟁 후 북한이 패퇴와 재 수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며 인민들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교육 활동

가. 사상 교양

전쟁기 북한에게 애국주의 사상은 전쟁 승리를 통한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적 수단이었다. 이념전쟁이었던 한국전쟁 시기에는 ‘애국’이 아니면 ‘매국’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전쟁기 애국주의의 핵심은 김일성의 위대성 관련 내용이었다.⁴⁰⁾ 김일성의 위대성 관련 교육은 크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당의 노선과 정책, 즉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쟁기 중앙 집권화 된 권력구조와 전쟁 승리를 위한 김일성의 교시, 담화, 호소문이 혁명전통보다 더

39)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의 특수성과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박수현, 「북한 국가건설기 선거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4권 제2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08, 143-146쪽.

40) “군중문화사업 활발-장강군 성장리에서,” 『로동신문』, 1953년 3월 30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일성의 위대성 교육과 동시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의 전폭적인 지지와 원조 등에 대한 국제주의 교육은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 승리와 체제 유지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책임감을 더욱 높이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밀접히 결부되어야 하는 개념이었다.

민주선전실은 김일성 노작(략전, 선집)이 발표되는 즉시 보급되었을 정도로 초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역사를 알리고 대중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활동과 역사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위대한 수령’, ‘원수’, ‘영도’, ‘수령의 호소는 곧 사업지침’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경어 사용을 일반화, 대중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부 농민들은 후퇴기간에 보관하고 있던 김일성의 초상화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민주선전실에 기부, 장식하면서 최고지도자와 국가에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다.⁴¹⁾

또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 애국선열들의 외세에 대한 투쟁, 조선의 자연과 지리에 대한 여건 소개와 재인식, 가족과 자기 조국에 대한 헌신과 사랑, 만경대 유람 및 교육 그리고 새로운 소유관계 등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⁴²⁾을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켰다. 특히 전쟁 중 만경대 유람 및 교육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성과들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면서 김일성 교시가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일조하였다.

애국주의 교육은 전쟁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의 노선과 정책 관련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일성의 교시는 전쟁 승리

41) “맹산군 송남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42) “민주선전실장의 사업 경험: 애국주의 사상 교양-강서군 운포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0일.

를 위한 노선과 방향성의 제시였으며, 교시 관철은 인민들의 입장에서 생존의 방법이요, 애국의 자발적 표현이었다. 수령의 교시를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중정치사업의 학교인 민주선전실 사업이 중요했으며, 각급 당 단체와 정권기관들이 민주선전실 사업을 방임하는 것은 반인민적 범죄로 취급하였다.⁴³⁾

민주선전실장은 김일성 수상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시, 담화 내용, 호소문 등, 예를 들어 평남도 농민대표들의 담화 내용, 전국 농민열성자대회 호소문, 내각 결정 등을 종합하여 리 농민총회와 민주선전실을 통해 전체 농민들에게 교육시켰으며, 이를 실천을 위한 농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였다.

민주선전실장 및 선동원들은 김일성의 담화 및 교시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민주선전실 앞 벽보판과 농민들의 출입이 잦은 부락 중요 도로에 직관물 선전판을 새로 신설하였다. 또한 전쟁기 적합한 표어와 만화 등을 게시해 농민들로 하여금 전쟁 상황을 명확히 인식해 긴장된 자세로 당과 국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립시켜 나갔다.

민주선전실장은 1950년도 작물 파종에서 미달성량과 급격히 증가하는 식량에 대비하기 위해 파종 계획 면적을 가능한대로 확장할 것을 결정한 1951년도 농작물파종사업 실행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제183호, 1952년도 영농 준비 및 실행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제13호,⁴⁴⁾ 농민들에게 식량을 대여함에 관한 내각 결정 제40호, 농촌 빈민들에 대한 고리대 현상을 제거할 데 대한 내각결정 제188호⁴⁵⁾ 등 당과 정부의 시책을 해설하는 좌담회, 호별 방문, 보고회, 강연회를 민주선전실에서 개최하였다. 당과 정부의 중요한 결정들을 중심으로 현행 정치

43)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44) “선동원들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3월 22일.

45) “농촌 농민들의 채무 관계를 정당히 해결 안변군 송강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8일.

정세, 전선소식, 농민들의 당면과업을 알기 쉽게 직접 해설해주며 앞으로 농민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1951년 맹산군 송남리에서만 약 2개월 동안 민주선전실을 통해서 연인원 호별방문 277명, 좌담회 477명, 보고회 567명, 강연회 432명에 달하는 농민들에게 당과 정부의 노선 및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⁴⁶⁾

김일성의 교시는 본질적으로는 전쟁승리를 위한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이었지만, 민주선전실은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를 농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느끼게끔 만들었다. 민주선전실장은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해 농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농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주선전실은 농민들의 요구,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들의 여론을 제때에 파악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김일성의 교시가 농민들이 생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보고하는 선전선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와 관련 혜택을 입은 농민들은 더욱 높은 자발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여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은 이북 지역 재수복 이후 월남, 사망 등으로 인해 주인이 없는 토지를 재조사하여 질 좋은 토지를 소개작업으로 인해 이주해 온 빈농들, 전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재배분하였다.⁴⁷⁾⁴⁸⁾ 또한 1952년 김일성은 평남도 내 농민들과의 한 담화에서 식량과 공업 원료 제공을 위해 가축 사양을 적극 장려하였다. 당시 무축 농가들 대다수는 전재 이주 농민, 빈농 혹은 군무자가족들로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절대로 가축을 사들일 경제적

46) “맹산군 송남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47)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 제고하여 춘기 파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48) 4,200평의 토지를 새로 부여받은 농민들도 있었다.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민주선전실은 당과 정부에서 무축 농가에게 농민은행을 통한 가축 구매 대금 대여 정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실장과 선동원들은 관할 구역 내 빈농들을 직접 파악, 방문하여 가축 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은행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⁹⁾ 이러한 상황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유축 농가와 무축 농가 사이에 상호 협조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유축 농가들이 자기 소유의 가축을 시장 가격이 아닌 국가 지정 가격으로 마을 빈농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특히 군무자 가족들에게는 국가가격보다 낮은 혈값으로 상호협조 차원에서 나눠주도록 유도하였다.⁵⁰⁾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전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의 세칙을 몰라 응답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들을 세밀히 조사하였다. 이후 해당 인민위원회에 직접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는 약을 얻어 주거나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받도록 주선하였다. 흉수로 농가가 침수되어 농민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민주선전실 구성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의 가계도구와 어린아이들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었다.⁵¹⁾

민주선전실은 강제와 강압이 아닌 유도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도덕’개념으로 발전, 구체화시켜 나갔다. 민주선전실은 당과 정부의 노선 및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체제 수호를 위해 자발적인 애국적 열정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토지를 새로 분여 받은 농민들, 농민은행 자금으로 가축을 사들인 농민 등 김일성의 정책적 배려로 인해 혜택을 받은 농민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민

49) “매 농가에서 가축 사양-길주군 백원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50) “가축 증식에 열성-북창군 상하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51) “민주선전실 사업 경험-평남도 안주군 룡서리 민주선전실장 리순태,” 『로동신문』, 1952년 9월 27일.

들 속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 혜택에 보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채무 관계의 경우 이를 정당히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임을 강조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빌릴 당시와 현재의 물가와 상황을 비교하여 이자 감면을 포함, 합리적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1년 전에는 1만원으로 쌀 두말을 살 수 있었는데 현재 3천원으로 그것을 살 수 있으면 3천원 만 값도록 설득하였다.⁵²⁾

또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혜택만 누리고 국가를 위해 아무것도 이바지하지 않으려는 소위 ‘건달뱅이’ 경향을 일소하기 위해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에게는 전선에서 온 남편, 아들 등 가족의 편지를 읽어주는 해설 선전사업을 진행하여 도덕적 의무를 다하게끔 유도, 설득하였다.⁵³⁾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국내외 정세 등 중요한 인민 관련 중요한 결정들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책적 혜택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다. 민주선전실의 이러한 활동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마을의 일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키우며 마을을 위해,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즐기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농민들은 민주선전실을 ‘우리 집’⁵⁴⁾이라고 부르며, 민주선전실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게 되었다.⁵⁵⁾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새 시대 낙후한 농민’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료 농민들로부터

52) “농촌 농민들의 채무 관계를 정당히 해결-안변군 송강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8일.

53) “파종 사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54) “대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2년 2월 17일.

55) “민주선전실장 홍창근 동무,” 『로동신문』, 1951년 6월 13일.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김일성 교시는 전쟁기 사회주의 ‘도덕’이 되었으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사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매커니즘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애국주의 교양은 단순히 체제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 기본 단위의 ‘가정’에 대한 애착과 사랑으로 연결되었다.⁵⁶⁾ 가정과 관련된 애국주의 사상을 교육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농촌 노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완고성과 여성들의 수동적이며 부끄러움이 많은 태도였다.⁵⁷⁾ 남자들의 전선출동으로 인해 가정의 주 구성원은 여성과 노인들이었으며, 실제로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역할은 절대적이였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는 체제 수호를 위한 후방사업의 중요성을, 노인들에게는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민주선전실은 여맹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기 가정과 자손, 친구, 가족들에 대한 애정, 시부모와 남편을 사랑하는 높은 도덕심과 책임감을 가질 것을 교육시켰다. 또한 후퇴시기 여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이별했던 상황들을 회상시키면서 전쟁고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모든 사업에서 여성들의 자기의 가족들, 남편,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조국의 운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패퇴 시기 비참했던 가정 형편을 회상시키면서 조국 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도 영화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었다.⁵⁸⁾

애국주의 교양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운영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활동과 역사를 중심으로

56) 위의 신문, 1953년 2월 20일.

57) “군중문화사업 활발-장강군 성장리에서,” 『로동신문』, 1953년 3월 30일.

58) “민주선전실장의 사업 경험: 애국주의 사상 교양-강서군 운포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0일.

지도자로서의 정당성, 즉 합리, 카리스마,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북한은 전쟁 승리를 통한 체제 유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김일성의 영도와 소련과 중국 중심의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를 꼽으며,⁵⁹⁾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성과들, 김일성의 교시를 선전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 및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성 강화 및 친선을 강조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해서도 인민들을 교육하였다.

패퇴 과정에서 이북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말하는 전쟁 승리와 체제 유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월남, 지역 이탈, 심지어는 남한과 유엔군에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간부 및 당원들에게도 생존을 위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체제 위기 상황에서 김일성은 국제주의를 통해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 승리와 체제 유지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고 전쟁 복구와 증산에 헌신하도록 책임감을 높여 나갔다.

전쟁 이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두 번의 내전과 독소전쟁에서 소련의 승리, 즉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제주의자는 무조건적으로 소련을 수호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을 일컫는 의미가 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별 사회주의 국가 혁명의 유지, 발전은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수호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국제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각자 자기 민족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했다.⁶⁰⁾ 그러므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교양은 밀접히 연계되어 교육되었다.⁶¹⁾

59)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60) “도시군 인민위원회 문화선전 간부회의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52년 3월 6일.

61) “민주선진실장의 사업 경험: 애국주의 사상 교양-강서군 운포리 민주선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0일.

북한은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 물질, 정신적 지지와 원조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 설명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전쟁 승리와 체제유지 및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켰다. 특히 소련의 내전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쟁 전쟁 경험과 교훈을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피부로 체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시 말해 소련인민들의 투쟁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롤 모델이었던 것이다. 민주선전실은 농촌지역 특성상 소련 꼴호즈 농민들의 투쟁을 주로 소개하였다. 소련인민들이 전쟁기 조국과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교육시키며 의식성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국제주의 교육은 전쟁기 소련과 북한 농촌주민들의 상황과 노력을 비교함으로써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소련인민들의 투쟁과 노력을 따라 배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전쟁기 상황 비교는 자연스럽게 전쟁이 대상자인 유엔군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는 기제로도 활용되었다.⁶²⁾ 또한 사회주의 노동이 가지는 신성한 가치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교육과 동원으로서의 인입 과정에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농민들 스스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만들었다.

나. 문화 계몽 사업

북한은 전쟁 전은 주로 문화 계몽 사업은 오락 활동 위주로, 전쟁기에는 정반대로 교육과 동원을 통한 전쟁 수행에 초점을 두고 당과 정부의 기조와 노선이 인민들의 실생활에 투입될 수 있게끔 문맹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갔

62) “강연 선전의 목적 지향성,” 『로동신문』, 1953년 2월 9일.

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문맹자들은 특성상 사실상 정치 밖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전쟁기 문화 계몽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농촌 지역 주민들의 미신 및 비위생적인 생활 풍습을 청산하고 과학적 지식과 보건위생 개념을 배양함으로써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둘째 전쟁기 농민들의 긴장 및 피로현상을 해소하여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문화 교양 교육들이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 계몽 활동 및 군중 문화사업은 비전쟁기에 필요하며, 전쟁기에는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간부들의 의식과 오락 및 씨클 사업 등에서 활동 그 자체에만 주목하고 교육적 의미는 퇴색되어 놓고먹고 즐기는 퇴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⁶³⁾

선전사업은 선전대상자의 정치적 수준과 생활 정도를 파악해 그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전개해야 했다. 전쟁기 농촌 주민들의 정치 이론 및 문화적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고 산악지형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⁶⁴⁾ 또한 전쟁기 농촌에는 청장년층들이 전장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구성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에게 일재 잔재와 봉건적 사고가 팽배했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후방 여성들의 활동을 최전선 전투와 동일시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생산 및 증산 활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상충되는 것이었다. 노인세대들의 봉건적 잔재와 인습의 타파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63) “농촌 군중문화사업의 강화,” 『로동신문』, 1952년 3월 6일.

64) “민주선전실은 농촌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의 실무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켰는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23일.

민주선전실은 이러한 인민들의 정치적, 문화적 낙후성을 퇴치하고 인민들에게 문화계몽 사업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에 집중했다. 리 내 있는 교원, 의사들을 초빙하여 보건 위생 강연, 각종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과학 강연, 해설 및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보건 위생 생활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보급시켜 나갔다.⁶⁵⁾ 더 나아가 여성들로 하여금 지역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직접 치료 받게 도와줌으로써 여성들의 활동이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었다.⁶⁶⁾

민주선전실은 이러한 사회적 반향을 토대로 전시 하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이때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금기시 한 봉건적 악습, 예를 들어 해방처녀⁶⁷⁾을 타파하기 위한 선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갔다. 후방에서 생산, 증산, 절약 등에서 위훈을 세운 여성들을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전선 편지, 선물 등 여성들의 전선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후방 여성들의 활동을 최전선 전투와 동일시하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생산 및 증산 활동을 보장하였다.⁶⁸⁾ 이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농촌 노인들은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일부 간부들이 여성들은 정치의식 및 문화적 수준이 낮다면서 당과

65) “강습 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19)-농촌에서 방역 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2월 14일.

66) “민주선전실장의 사업 경험-로인들 속에서의 사업,” 『로동신문』, 1953년 1월 14일.

67) 해방처녀는 국군이 들어왔을 때 국군과 사랑하다가 그들이 후퇴한 뒤에는 다시 처녀 노릇을 하는 여자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남성 노동력 품귀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생산과 동원의 주역이었던 여성들의 사기를 꺾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상)』, 서울: 현장문학사, 1990, 203쪽.

68)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정부의 노선 및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힘들다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여성 열성자들로 하여금 당 강령 및 규약 연구, 한글 교육, 연극 등의 씨름을 운영케 함으로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여맹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 열성자 농민들은 교육과 동원을 통해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 남아 있는 낡은 생활 풍습과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⁶⁹⁾ 또한 선진영농경험을 전수받고 다수확 농민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민주선전실장 및 분실장 등 마을 정치, 사회사업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⁷⁰⁾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어 후방지역 농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다.

민주선전실은 정치, 문화 의식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신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쟁기 출판물 사업은 전쟁 물자 수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못했으며, 혹시 진행되더라도 적은 부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을 이용해 교육을 받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선전실에서는 지역 인민학교 교원들을 인입시켜 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지역 신문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기도 하였다.⁷¹⁾ 전쟁기 신문은 개별 주체들이 사회로 나아가고 사회가 개별 주체로 다가오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북한에서 발간된 신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남북이 혼합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69) “강습 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10)-녀맹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 협조 사업,” 『로동신문』, 1952년 12월 5일.

70) “녀성 열성자들을 육성함에 노력-경성군 팔경대리 당 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5일.

71) “마을의 교실-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평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담당하였다.

신문과 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농민들이 지나오다 마을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벽보판의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선전실 내에는 5명으로 구성된 벽보편집위원들이 매주 1회 이상 벽보를 발간하여 전쟁과 지도자, 마을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였다.⁷²⁾ 농민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벽보는 ‘정치적 폭로’의 기능을 하였다. 벽보에는 비판란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이에 소개된 농민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⁷³⁾ 벽보판에는 모범농민들의 투쟁기와 국내외소식은 물론 마을 안에서 누구네 집의 송아지 낳은 소식까지 나붙게 됨으로써 마을 전체 농민들이 각 개별 농민들의 대소사까지 쉽게 알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쟁기 농촌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 지도부는 영화 관람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음악, 무용, 연극 등 연예 씨클들을 광범히 조직, 운영하여 농민들의 긴장 및 피로현상을 해소하고 더욱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강제와 의무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민주선전실에 자연스럽게 모여들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사실이다.

전술하였듯이 민주선전실은 자체적으로 정치·문화적 교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설,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는 폭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이 급히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⁷⁴⁾ 예를 들어, 돌연히 비가 오는 날이면 청소년들을 모아

72) “민주선전실사업 활발,” 『로동신문』, 1951년 11월 26일.

73) “농민들 식량 증산에 힘차게 고무 추동-민주선전실장 윤경옥 동무,” 『로동신문』, 1951년 4월 3일.

74) “민주선전실과 민주선전실장,” 『로동신문』, 1951년 9월 12일.

농고 가창보급회와 소년 가창대의 공연,⁷⁵⁾ 장년과 노인들을 위해 장 기대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행사 중간 중간에 정치 담화회와 영농에 관한 경험교환회 등 정치사상 및 문화 계몽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⁷⁶⁾

문화 씨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은 선전 선동 활동 및 전쟁으로 인한 긴장 및 피로현상을 해소하여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 씨클은 대부분 사회단체 선동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선전실에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농민들이 민주선전실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민주선전실에 올 수 있도록 매일 밤마다 가장 인기가 있을만한 오락을 준비하였다가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발표하였다. 민주선전실의 오락 및 문화 활동에는 보통 밤마다 30-40명의 농민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려고 노래와 이야기들을 은근히 미리 마련하여 가지고 오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⁷⁷⁾

선전선동활동은 자신이 그 대상이 모를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 특히 전쟁 중 선전선동은 인민들로 하여금 주 대상이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없을 때 더욱 정치성이 강해진다.⁷⁸⁾ 자신이 선전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기 북한 농촌 주민들은 민주선전실을 통해 선전선동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이 북한 주민들에게 물리적 전투의 수준을 넘어 선전선동의

75)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얻은 나의 경험-함남 함주군 원흥리 민주선전실장 안약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76)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평남도당부 선전선동부장 리창협,” 『로동신문』, 1951년 9월 18일.

77) “민주선전실 사업 경험 - 평남도 안주군 룡서리 민주선전실장 리순태,” 『로동신문』, 1952년 9월 27일

78) Edward Bernays, *Propaganda* (New York: Ig Publishing, 2005), p.15.

전쟁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신이 북한 주민이라는 정체성과 체제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선전선동을 통해 의도했던 바였다.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인민 동원 활동

가. 선진농업기술을 통한 식량 증산과 절약 활동

전쟁 중이었던 1951년 여름 북한 지역은 수십 년 이래 최악의 흉수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당해연도 농업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1952년 영농준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미군의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한 무차별 폭격은 화학 비료 공장의 파괴로 인한 비료 공급 제한과 농촌지역 노동력과 축력의 부족현상을 심화시켰다. 전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북한에게 후방지역의 물적, 인적 피해는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당과 정부, 그리고 농촌 주민들 모두에게 체제 유지를 위해 농업생산량 증대와 식량 절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전시 하 전쟁 수행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식량 증산과 절약이었다. 전쟁기 우수한 미군과 유엔군의 화력에 맞서 전장에서 지지부진하던 북한으로서는 농촌 주민들의 식량증산과 절약은 전쟁 수행과 체제 유지, 즉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식량 절약 또한 증산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증산을 위한 투쟁에 더 많은 정책적 역량을 투입했다. 민주선전실은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각종 우수한 영농기술 및 방법, 사례들을 소개하고 증산경쟁운동을 유도하였으며, 식량 절약을 위해서는 전통적 관혼상제를 식량을 낭비하는 ‘인습’으로

규정하고 농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였다. 북한은 식량 증산과 절약을 위해 농민들 간의 상호 교류 및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1950년 9월 1일 내각 제2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전시 식량증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전시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은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였다.⁷⁹⁾ 이어 내각 지시 제638호 ‘1951년도 춘기파종지도요강’을 하달하였고, 1951년 4월 13일에는 1951년 농업증산경쟁운동에서 우수한 단위들에 “승리의 기”를 수여할 데 대한 내각 결정을 채택하여 농민들의 전시 식량증산 경쟁을 본격화시켰다.⁸⁰⁾

농업 관련 민주선전실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 속에서 선진영농기술을 보급시켜 그들을 식량 증산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⁸¹⁾ 먼저 민주선전실장은 마을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세밀히 살펴며 마을 농업 기술 수준, 인력, 농기구 등 농업 사정에 대해서 매일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 세밀한 통계를 작성하였다.⁸²⁾ 민주선전실장은 혁명열사 유가족, 전사자 가족, 피살자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당원 가족을 중심으로 농촌 사업을 진행시켰다. 민주선전실은 이를 근거로 각종 선진 영농 기술, 방법, 사례에 대한 기술 강습회, 경험 교환회 및 기술 전습회, 계층별 담화, 인민반 좌담회, 개별 방문 등을 통해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민주선전실장은 선동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강습을 실시해 일단 이들의 사업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쏟

79)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64쪽.

80) 최중극,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시경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1쪽.

81)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얻은 나의 경험-함남 함주군 원흥리 민주선전실장 안약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82) “마을 농민들을 증산으로 고무 추동-민주선전실장 김정섭 동무,” 『로동신문』, 1953년 6월 15일.

아부였다. 선동원들은 실제 농민들과 동거동락하는 인민들 중에서 선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 제고는 민주선전실이 선진 농업기술을 교육시키는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했다. 또한 민주선전실 내 도서관에 농산기술보급교재, 다수확 영농경험집, 농민신문 등 농업 관련 서적 및 자료들을 농민들이 쉽게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으며,⁸³⁾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사진, 그림 및 기사들이 게재하였다.

전쟁기 ‘경쟁’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자극이었다. 경쟁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후방 지역 농민들에게 내재해 있는 나태 및 태만 등 안일성을 제거하여 긴장된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교육과 동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선진농업기술과 증산 분야 관련 선전선동은 경쟁을 유발,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민주선전실은 다수확 그룹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농 기술과 방법을 따라 각 그룹별로 개별적인 증산 계획을 수립케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간의 경쟁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식량 증산을 위해 ‘모범부락창조운동’을 적극 벌여 다수확 농민들의 모범을 북한 전체 농민들이 따라 배워 증산경쟁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⁸⁴⁾ 다시 말해 다수확 농민들의 농업기법은 농업 증산 관련 당 정책과 노선이 되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우수한 다수확 농민들의 선진 영농법을 구체적으로 해설, 선전함과 동시에 마을 내 기술 전습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선전실 내 게시판과 마을 주요 출입구에는 농민들이 오며가며 쉽게 볼 수 있게 각 단위별 농업 실적 및 경쟁 그래프, 우수한 다수확

83) 위의 신문, 1953년 6월 15일.

84)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농민들 소개 및 이를 차용한 다수확 영농법 실시 비율표 등이 게시되었다.⁸⁵⁾ 민주선전실은 다수확 농민들의 농업기법 예를 들어 육묘⁸⁶⁾, 냉상모⁸⁷⁾, 병목식⁸⁸⁾ 또는 장방식 소주밀식⁸⁹⁾ 방법, 한식 전 봄보리 파종 법 등을 일반 농민들에게 실례와 직접 체험을 통해 꾸준히 해설하였다. 북한은 선전선동을 통해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마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마을 내 성과가 제일 우수한 일등 반(班)의 우수한 경험과 정반대로 성과가 가장 낮은 반(班)의 원인과 문제점을 비교·분석, 구체적인 계획 및 개별 격려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꼴찌 반(班)의 경쟁 열의를 자극하여 꼴찌 반(班)이 일등 반(班)의 농업 생산을 뛰어넘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⁹⁰⁾ 이러한 기적은 김일성에게는 선전선동의 가치를 재인식시켰으며, 민주선전실에게는 선전선동 내용과 방법의 정당성을 확보시켰으며, 농민들에게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85)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 - 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86) 육묘라고도 함. 밭 또는 마른 논에서 물을 대지 않고 키우는 모. 물모에 비해 튼튼하고 모낸 후 모살이가 빠르다.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판자리, 씨 뿌리는 시기와 양을 바로 정하고 가꾸기를 잘해야 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1447쪽.

87) 부식도와 비닐박막을 이용하기 냉기를 막고 햇볕을 받아 모를 기르는 것을 말하며, 인공적으로 열을 가해 기르는 온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냉상모판에서 기른 모. 위의 책, 1418쪽.

88) 줄모라고도 함. 길게 모줄을 치고 돌 또는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추어서 쫓는 모내는 방법의 하나 또는 그렇게 낸 벼 모. 위의 책, 1516쪽.

89) 직사각형 모양으로 모를 낼 때 한 포기(대수(모수))를 적게 하고 전체적으로 포기는 배게 심는 것으로 쫓히는 포기 수를 많게 함. 다시 말해, 한 포기(모수)는 2-3대로 하고, 한 평에 100포기 이상을 심는 따위. 위의 책, 775쪽.

90) “날로 올라가는 경쟁 도표-강원도 문천군 룡주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1년 6월 11일.



<사진 III-1> 민주선전실 밖 현황판, 각종 선전자료를 보는 농민들⁹¹⁾

* 출처: 정창현, 「당내 갈등 8월중과사건으로 폭발 천리마운동 추진 결정 - 사진으로 보는 북녘 역사(16) 1956년」, 『민족21』, 제125호, 8월호, 2011, 141쪽.

민주선전실에서 제공하는 선진 영농기술을 거부하는 일부 농민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낙후한 사람들’로 규정되어 도덕적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북한은 이들을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봄 보리 파종 기일이 10여 일이 지난 4월 초까지 파종하고 있는 농민들을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개별적으로 방문하였다.⁹²⁾ 평생 한식 전에 파종을 한 적이 없다며 농사를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식 전에 파종을 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 내 다른 농민들과 북한 내 타

91) 이 사진의 배경은 전쟁 후인 1956년이다. 본 연구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민주선전실 관련 북한 문헌에서는 민주선전실 외부 현황판 및 각종 선전자료를 보는 지역 농민들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1956년도 민주선전실 사진을 소개했음을 밝힌다. 본 논문에 사진 인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정창현님께 감사드린다.

92)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에 노력-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지역의 경험과 실례들을 이용하여 조기 파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⁹³⁾ 동시에 민주선전실장은 전선에서 온 편지를 직접 읽어주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었다.⁹⁴⁾ 이들 농민들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봄보리 파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농업 증산을 위해서는 선진농업기술도 중요했지만 당시 북한 일부 지역의 토지들은 폭격과 비료 부족으로 인하여 토질이 척박해 진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급비료의 대량 생산은 식량 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⁹⁵⁾ 전쟁기 자급비료 중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풀이었으며, 곡초, 가축의 분뇨, 해초, 쓰레기 등을 풀과 함께 퇴적시켜 썩힌 퇴비를 마련하였다. 농촌 당과 정권기관들은 성초기 때 전체 농민들에게 자급비료의 증산계획을 대부분 풀로써 충당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주선전실은 7-8월 두 달 동안 풀베기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성과를 얻기 위해 경쟁운동도 전개하였다.⁹⁶⁾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마을에서는 200여 톤의 자급 비료가 논, 밭에 반출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⁹⁷⁾

민주선전실은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민들 간의 상호 교류 및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농민들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수확 농민 당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갔다. 민주선전실에서는 다수확 농민들과 전재 농민들, 빈농민들 간의 우량 벼 종자, 각종 곡물의 종자, 식량을 대여 혹은 무상지원, 각종 농기구의 무상 수리, 정비하도록 유도하였다.⁹⁸⁾ 상호

93)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94) 위의 신문, 1953년 4월 24일.

95) 위의 신문, 1953년 4월 24일.

96)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풀베기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시키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4일.

97)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간의 ‘호조미 대여운동’을 전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자신들의 양곡을 거출하여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축우 소유자들이 이기주의로 인해 대여 및 경작료가 지나치게 비쌌던 현상을 퇴치하기 위해 이들을 설득시켜 경작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⁹⁹⁾ 리 세포총회에서 제기된 소 증식 사업에서 민주선전실장은 리 내 모종수를 제외한 축력을 모두 암소로 교체하는 등 전쟁기 농촌 지역의 수역사업에도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다.¹⁰⁰⁾

민주선전실은 지방 당과 정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식량 증산이 결부된 용수 확보 문제도 해결해 주는 등 실지사업의 모범이 되었다. 민주선전실은 지역 당과 정부의 협조를 얻어 세포총회에서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촌지역의 수로 변경사업을 직접 주도하기도 하였다. 민주선전실장은 15리나 떨어져 있는 양수장을 이전시키고 수로를 변경하는데 3,000 공수의 인력의 약간의 자금 및 자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의 높은 자발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지방 당과 정부, 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을 완성시켰다.¹⁰¹⁾

이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신수로 건설, 수로 더 깊이 파기, 눈 녹은 물 확보와 저수탑 건설 등 농민들의 요구에 철저히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¹⁰²⁾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민주선전실의 모습을 통해 당, 정부, 농민 그리고 지도자 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다시 말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선전실과 농민들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당과 농민들의

98) “빈농들의 영농을 협조-개성지구 각 농촌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99)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추경을 성과 있게 보장,”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100) “가축 증식을 위한 투쟁-리원군 성로대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101) “대중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평양 순천군 상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102) “용수 확보를 위한 투쟁-함북도 내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농업생산량과 관련해 인민들은 점점 더 민주선전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이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수용하면 할수록 그들 자신이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더욱더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 최대의 애로사항은 청장년층의 전선 파견과 폭격으로 인한 인력과 축력의 부족이었다. 군무자, 부상자 가족들, 노인들, 심지어는 농사 경험이 부족한 젊은 여성들 등 노동력의 부족과 축력의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협조나 동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김일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2년 5월 10일 대동군 원화리를 현지지도 하면서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³⁾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의 조직은 노동력, 축력뿐만 아니라 농기구의 사용까지 공동으로 진행하여 농업 관련 경험이나 기술 또한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다.¹⁰⁴⁾

전통적으로 소겨리와 품앗이는 발갈이와 모내기 등 농사 준비에 일손이 많이 가는 국한된 시기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협동노동의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서로 의무적인 연관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전쟁기 소겨리반¹⁰⁵⁾과 품앗이반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하나의 작업조로 기능과 성격이 급격히 변경되었다.¹⁰⁶⁾

103)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조국해방전쟁시기 발현된 후방인민들의 혁명적 생활 기풍』,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92-93쪽.

104) 김일성, 「대동군 원화리농민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12쪽.

105) 한국전쟁시기 운영된 소겨리반은 있는 소를 가지고 모든 밭을 갈기 위해서 든든한 소는 한 마리로, 약한 소는 두 마리를 짝을 지어서 리내의 모든 농가들을 단위로 묶는 생산단위였으며, 발갈이에서 뿐만 아니라 거름운반, 낱알운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작업조였다. “22개 소겨리반 논 발갈이에 총동원-박천군 덕인리에서,” 『로동신문』, 1951년 4월 12일.

106) “품앗이반 조직 운영 사업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평남 순천군 운흥리 세포에서,”

북한은 민주선전실을 통해 소겨리반과 품앗이반의 조직 및 활동에 직접 개입하였다. 소걸이반과 품앗이반은 축력, 노력 및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열성 당원들을 매 반에 2-3명씩 배치하여 증산경쟁운동을 전 대증적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¹⁰⁷⁾ 소걸이반과 품앗이반 간 경쟁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각 ‘리’간 경쟁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이 운동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그려 마을 농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증산 열의를 더욱 자극하였다.¹⁰⁸⁾ 소겨리반이 그대로 품앗이반이 되기도 하였고 소겨리반을 기준으로 그 속에 다시 품앗이반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의 품앗이반에 2-3개의 소겨리반이 조직되기도 하였지만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¹⁰⁹⁾ 1952년 현재 평안남도 경우 3만 3,523개의 품앗이반과 2만 6,151개의 소겨리반이 운영되었으며, 품앗이반에 소속된 농민 수는 35만 7,715명이나 되었다.¹¹⁰⁾

소겨리반과 품앗이반은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조직된 이유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당 및 인민위원회, 특히 민주선전실과 선동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전투적 슬로건이 되었으며, 결사 관철을 시켜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은 선동원들을 소걸이반과 품앗이반에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밭을 직접 갈아주는 등 농촌 활동의 실제 모범을 보이게 하였다.¹¹¹⁾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을 통해 생산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북한 지도부는 농촌지역 인민소비를

『로동신문』, 1952년 8월 4일.

107)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여 춘기 파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108) 위의 신문, 1953년 5월 14일.

109) 력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위의 책, 94쪽.

110) 최중극, 앞의 책, p.163.

111) “민주선전실장 홍창근 동무,” 『로동신문』, 1951년 6월 13일.

자연스럽게 계획할 수 있었다. 소거리반과 품앗이반은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지역 생산 및 동원의 단위였던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선전선동이 단순히 구호 제창 및 홍보가 아니라 주어진 과제 실천을 통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며, 선전선동은 체제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임을 인민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자리잡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선전선동은 실천을 전제로 한 ‘성과기제’였으며,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의 결합을 설명하는 체제 ‘운영기제’였다.

전쟁기 인력과 축력의 부족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남성들의 일로만 인식되어졌던 힘든 노동을 여성들이 대체하면서도 메워졌다. 먼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과 밭머리에 대피호를 설치하고 소와 대피호를 위장하여 밤에도 알곡씨를 뿌리는 등 야간작업을 실시하였다. 1951년 말 현재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에서 28만 2,000여개소의 밭머리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었다.¹¹²⁾

전통적으로 농업 밭갈이는 전적으로 남자의 영역이었다. 밭갈이는 영농 작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밭갈이의 성과는 농업생산량으로 직결되는 문제였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밭갈이는 여성들이 하는 ‘여성보잡이운동’이 실시되었다.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청장년층의 여성들은 인근 공장기업소의 작업원으로 의무 동원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업을 행한 이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이 운동은 민주선전실장을 비롯한 농촌지역 당원인 인민군 후방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여성들이 앞장섰다. 이 운동은 1951년 한 해 동안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지역에서 무려 13,000여명의 여성보잡이군을 배출하였다.¹¹³⁾

민주선전실은 리 여맹위원회를 동원, 여성들에게 야간에 여성 보잡

112) 역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앞의 책, 80쪽.

113)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366쪽.

이 견습회를 실시하였으며 밭갈이와 추경작업을 전수받도록 하였다. 보통 밤 견습회에는 10명-20명의 여성들이 참가하였다.¹¹⁴⁾¹¹⁵⁾ 또한 민주선전실은 여성보잡이운동 상황을 마을 입구 벽보판에 게시하여 전체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더욱 자극하였다. 하루에 1,200평씩 기경 하던 것을 1,500평 기경으로 확대하는 등 민주선전실은 밭갈이와 추경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 관련 최소한의 노력 기준은 당연히 여성들의 생산량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하는 정치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

전시 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은 농업부분 증산과 더불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절약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식량이 없이는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식량을 위한 절약도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식량 절약 또한 증산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으므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중요했다.¹¹⁶⁾ 사실상 식량 절약은 막대한 양의 쌀을 전쟁과 관련 없는 일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전쟁기 식량 절약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는 1951-52년 극심한 자연재해, 미군이 폭격으로 인한 농업기반 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이뤘으며, 스탈린의 밀가루 5만 톤 대북지원,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식량 지원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낭비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식량 증산 및 절약을 단순히 식량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재정 및 물자’범위에 포함시켜 당시 농촌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인적,

114)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추경을 성과 있게 보장,”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115)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3년 4월 24일. 두 문헌에서 공통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 관계로 각주를 두 개로 처리했음을 밝힌다.

116) “농촌여성들 속에서의 당 정치교양사업,” 『로동신문』, 1952년 2월 17일.

물적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현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 중 높은 수준의 경각심 유지, 군수물자의 보장, 인민생활 안정, 전시 경제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가 및 개인 재산을 함부로 낭비, 횡령, 절취하는 현상과 이를 은근히 용인하려는 분위기가 일소하려 하였던 것이다.¹¹⁷⁾

김일성이 1952년 2월 증산과 절약 운동과 관련 전시 조건 하에서 군수물자 보장과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해 증산과 국가 재정 및 물자, 식량을 절약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¹¹⁸⁾ 식량 절약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전쟁기 관혼상제, 제사상 차림, 명절, 환갑 혹은 밀주를 만들어 먹는 것 등을 인습으로 규정하고 집안 행사에서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곡식의 대규모 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둘째, 식량 절약을 통해 얻은 곡식을 팔아 가축 사육 및 부업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으로 연결시켜 이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민주선전실에서는 실장과 선동원들의 세미나를 통해 정초와 명절 때 식량을 낭비하는 현상들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집안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다.¹¹⁹⁾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인민반 좌담회를 통해 여성들 속에서 식량 절약 방법을 대한 경험교환회를 개최하고 식량 낭비 현상에 대해 실례를 들어 분석, 비판적으로 설명하였다.¹²⁰⁾

민주선전실은 가족들을 위한 제사상 차림, 관혼상제, 명절, 환갑 등을 위한 떡, 엿, 혹은 밀주를 만들어 먹는 것 등 집안행사에서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곡식이 낭비되는 현상을 인습으로 규정하고 지역

117) “절약과 축적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 『로동신문』, 1952년 12월 18일.

118) “식량 절약을 광범한 전 인민적 운동으로,” 『로동신문』, 1952년 11월 29일.

119) “대중과의 긴밀한 연계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평양 순천군 상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120) “식량 절약의 성과-안악군 원룡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2월 26일.

부락민 전체를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실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¹²¹⁾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쟁기 식량 사정으로 인해 집안 행사를 위해 떡, 엿, 술 등을 만들어 먹는 것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옛날 관습과 남들의 이목으로 인해 자기도 안할 수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량 식량 소비는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한 식량 처리 문제와 풍년기 겨울 기간 내 도박과 음주, 방탕하는 생활 패턴과도 연결되어 전 사회적 기강 해이와 나태로 이어졌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낭비보다 절약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망설임’을 해결해 나가려 하였다. 이들은 호별 방문과 해석을 통해서 집안 행사를 위해 식량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것보다 전쟁기임을 감안해 절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례를 하지 않더라도 흠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설득시켰다. 이것은 북한이 전쟁기 인민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는 과정에 전쟁 분위기를 이용해 어느 정도의 강압과 강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은 식량 절약을 위한 투쟁을 단순히 구두로 선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과 모범을 통해 군수물자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김일성은 1952년 11월 평남도내 농민들과 한 담화에서 식량과 공업 원료 제공 등 군수물자 보장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적극 장려하였다. 김일성은 다량의 육류와 공업 원료를 제공하는 면에서 가장 생산 능률이 높은 가축인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¹²²⁾ 민주선전실에서는 이를 토대로 절약한 식량을 가지고 가축을 구매하여 실생활에서 식량, 농업 및 공업 원료 제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교육시켰다. 이러한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각지 농민들은 매 농가마다 돼지 한 마리씩을 의

121) “대중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장하였는가-평남 순천군 상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2년 5월 3일.

122) “가축 증식에 열성-북창군 상하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무적으로 기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¹²³⁾

민주선전실 구성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절약한 식량을 이용하여 마을에서 최초로 새끼 돼지들을, 수방직물을 생산하여 판돈으로 새끼 돼지들과 닭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농민들도 도경작업에서 출미율을 높이고 식량을 매몰해 보관함으로써 매일 매일 식량을 일정한 분량으로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지 식량 절약 방법을 통해 저축한 쌀로써 돼지들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안악군 원룡리 제3인민반에 속한 21호의 농가에서는 엿, 떡 등을 만들어 먹는 현상을 근절시키고 절약할 쌀과 부업으로 얻은 돈을 보태어 25마리의 돼지를, 마을 전체로는 100여 마리의 돼지를 구매하여 공동으로 사육함으로써 전체 부락이 무축농가가 한 집도 없게 만들었다.¹²⁴⁾

식량 절약을 통한 가축 사업은 다시 식량 증산을 위해 쓰여졌다. 농민들은 양돈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새 농기구들을 공동 구매, 이용함으로써 서로 돕는 협동 정신을 토대로 농업과 양돈 사업 모두에 열성을 다하였다.¹²⁵⁾ 농업과 가축 사업은 가축 분뇨를 이용한 자연 비료 생산과도 연계되어 결론적으로 식량 증산과 절약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국가 부의 축적은 전선 원호 및 인민군대의 후방가족, 전재민, 부상병들에 대한 사회적 원호 사업을 강화시켜 북한 지도부가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 승리를 위한 원천과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식량 절약은 증산과는 달리 인민들이 생활에서 자각하고 습관적으로 이행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민주선전실장은 위와 같이 다양한 실례들과 모범 사례 등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증산과 절약 투쟁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 농민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으며,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농민들의

123) “가축을 대량 증식,” 『로동신문』, 1953년 5월 29일.

124) “식량절약의 성과-안악군 원룡리에서,” 『로동신문』, 1952년 2월 26일.

125) “가축 증식에 열성-북창군 상하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3년 5월 14일.

애국적 열정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민주선전실의 선전선동 활동과 식량 증산 및 절약 등 경제적 성과를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관계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와 경제의 결합관계를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선전실은 선전선동 활동을 충분하게 조직, 운용하지 못한 점을 비판받았다.¹²⁶⁾ 더 나아가 민주선전실은 인민들의 생활 형편과 그들의 요구에 무관심하며, 이를 지도해야 하는 지역 당과 인민위원회들도 지도와 관심 부족으로 비판받는 등 집단 책임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김일성이 전쟁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식량 증산 및 절약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을 통해 선전선동 활동의 실패는 곧 전쟁의 실패였던 것이다.

나. 전선 및 후방 원호 사업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사회적 원호 사업은 크게 전선과 후방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선 원호 사업은 군기기금헌납운동, 전선 원호미헌납운동과 작전 중인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지원하는 행태로 이뤄졌다. 그 중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지원은 김일성이 각 별히 강조했던 중점 사업이었다.

군기기금헌납운동은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된 전쟁기 이북 지역의 가장 큰 사회적 운동이었다. 대부분의 군기기금은 당과 중앙 및 지방 정권기관, 공장 및 기업소 등을 단위로 헌납되었다. 농촌 민주선전실도 이러한 이북 지역 전 사회적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예를 들어 룡강군 서부리 농민들은 군기기금헌납운동에서 86,500원에 달하는 금품을 헌납했다. 1951년 7월 중에만 인민군 장

126) “춘기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2년 4월 17일.

병들에게 1,350여점의 위문품을 보냈다.¹²⁷⁾ 황해도 재령군 당□¹²⁸⁾ 리 여맹 위원장은 민주선전실과 함께 135필의 무명을 생산하여 얻은 18,980원을 군기기금으로 헌납하였다. 또한 인민군대의 옷 136점을 9회에 걸쳐 세탁해 주고 김치와 수건, 장갑 등을 선물로 전선에 보내 주었다.¹²⁹⁾

전선원호미헌납운동 또한 전 사회적 원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전선으로 보내지는 원호미는 김일성에게 보내는 충성 선언이요, 충성의 메시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민주선전실이 개별 주민들의 식량 수확 목표를 정한 것을 파악한 것을 근거로 당과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민주선전실을 통해 다수확을 경험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여유 곡물을 자발적 감사의 표시로 김일성에게 바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민주선전실에서 전수한 룡상모와 소주밀식 등 선진 농업기술과 자급 비료 다량 생산의 노력을 통해 농업생산량을 늘인 농민들이 이 운동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이다.¹³⁰⁾ 평남도 평원군 숙천면 로덕리 신원섭 농민을 비롯한 8명의 다수확 농민들은 자기들이 내세웠던 수확 목표 정당 7톤 500킬로그램을 정당 8톤 229킬로그램 초과 생산하고 여유 곡물 중에서 쌀 50가마니를 전선원호미로 김일성에게 바쳤다. 평북도 룡천군 신도면 병호리 로영세 다수확 농민은 벼 50가마니를 그리고 함북도 명천군 동면 유신화 농민은 벼 35가마니를 각각 자가 소비를 제외한 여유 곡물 중에서 전선원호미로 헌납하였다.¹³¹⁾

127)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12일.

128) □는 해독 불가로 저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129) “후방사업 강화와 전선원호사업에 분투-리선화 녀맹 위원장,” 『로동신문』, 1952년 4월 6일.

130) “다수확 농민들의 전선원호미 헌납-김년수 농민 벼 15가마니,” 『로동신문』, 1952년 11월 17일.

131) “전선원호미헌납운동에 열거한 농민들의 비등된 애국적 열성,” 『로동신문』, 1952년

북한은 당시 로동신문을 통해 이 운동에 동참한 다수화 농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전국 단위의 대대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김일성은 전선원호미에 대해서 조선인민군의 무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전장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수화 농민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시하고 다수화를 격려했다. 더 나아가 전선원호미를 받은 보답의 의미로 전선의 장병들은 새벽 기습작전 등을 모의하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두면서 이 운동의 정당성을 구축해 나갔다.¹³²⁾ 이와 더불어 민주선전실장은 국고에 돈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절약과 부업으로 번 돈을 은행과 저금소에 저축하도록 독려했다. 각 반 별로 저금 예상액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호 경쟁시킴으로써 저금을 독려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는 두 달 간 민주선전실장 한 달 월급 12원의 10년 월급에 해당하는 2천원을 저금하기도 하였다.¹³³⁾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선전선동을 연관시켰던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군기기금헌납운동 및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의 성과는 효율적인 선전선동의 결과였다. 김일성은 이 운동들을 통해 군인과 농민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선전실을 격려했던 선전선동을 통해 길어지는 전쟁에 스스로 대비해나갔으며 체제 유지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유’를 제공해 주었다.

군기기금헌납운동, 전선원호미헌납운동과 더불어 인민군과 중국인 민지원군에 대한 현장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스스로 민주선전실에서 실시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육, 식량 증산과 절약 사업 등이 실제 전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체제 유지 및 발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

11월 17일.

132) 위의 신문, 1952년 11월 17일.

133) “농민들의 저축 열의,” 『로동신문』, 1952년 4월 10일.

는 정치 의식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농촌 당 단체 및 민주선전실은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의 군복 세탁, 오락, 차 및 식사 대접, 부상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다.¹³⁴⁾¹³⁵⁾ 어느 한 부락에 전선에서 싸우던 중국인민지원군 부대가 머물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형제들이 전선에서 싸우다 돌아온 것처럼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여맹원들은 바쁜 농사일 와중에서 시간을 내서 그들의 군복을 모두 세탁해 주었으며, 소년단원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중국인민지원군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민주선전실장과 마을 사람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을 민주선전실로 초대하고 각종 예술 공연으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부상병들을 위하여 집집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가 위문하고 간호해 주었다. 이 부대는 떠나가면서 이 부락 민주선전실에 〈용군모범촌(모범적으로 군대를 원호하는 부락)〉이라는 표어를 써붙여주었으며,¹³⁶⁾ 이는 전쟁 내내 북중 우호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선전실의 이러한 군인에 대한 직접 원호 사업은 농민들로 하여금 인민군들에게는 자신들의 전우이며,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우리’, 북한-중국 사이에는 ‘형제’, ‘혈맹’이라는 개념이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후방 원호 사업은 크게 군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반간첩투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기 북한 지도부는 전장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인민군대의 가족, 군무자 유가족, 전재민, 부상병들, 심

134) “강습 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17)-초급 당 단체들은 전선 원호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2월 12일.

135) “인민군대와 중국인민군지원부대의 원호사업을 인민적 운동으로 추진-개천군 당단체에서,” 『로동신문』, 1951년 1월 7일.

136) 김일성, 「우리의 정의의 공동투쟁은 승리한다」,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68쪽.

지어 빈농들에 대한 후방 원호 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김일성은 유가족 및 후방가족 원호 대책 등 사회적 원호 운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선전실로 하여금 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하도록 지시하였다.¹³⁷⁾

민주선전실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전쟁기 군무자 가족, 유가족과 빈농들에 대한 상호 원조에 관한 선전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켰다. 민주선전실뿐만 아니라 농촌 당 열성자들과 간부들도 이들의 주택, 식량 및 연료 문제 등 그들의 생활상의 형편과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물질적, 정신적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선으로 나간 여성의 경우 군무증명서를 구비하여 군 인민위원회 양정과에 연락하여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미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집을 수리, 보수하여 주었다. 노인들의 경우 전선에 나간 아들에게 대신 편지를 써주던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아스피린을 구해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¹³⁸⁾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히 군무자 가족, 전사자 유가족 등은 남한과 유엔군에 대한 증오심과 애국주의 그리고 당과 정부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의 상징이었으며, 검증된 일군들이었다.¹³⁹⁾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이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이해시키고 원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며 이들의 열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정책적 정당성을 쌓아 나갔다.

북한은 그들의 생활상의 곤란상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는 의존적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그들의 여건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또한, 그들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생산 및 증산, 절약 운동에 적극 인입시켜 전 사회적

137) “김일성 원수의 평남도 내 농민대표들과의 담화 내용을 농민 속에 침투시키기 위해 노력-대동군 화성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4월 20일.

138) “농민들의 친근한 벗-민주선전실장 김철무 동무,” 『로동신문』, 1952년 4월 12일.

139) “농촌 당 열성자 육성사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23일.

인 롤 모델이 되도록 일반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것은 인민군 장병들의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국가가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전장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노인들이 남은 후방 지역에 남한과 유엔군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이들의 침입, 활동은 지역 안정화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간첩투쟁과 농촌 자위대¹⁴⁰⁾ 사업을 강화하였다. 반간첩투쟁을 위한 교육과 동원은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자위대 사업 또한 민주선전실 선동원들, 특히 여성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운영¹⁴¹⁾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업 모두 실질적으로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의 강화를 위해 북한은 일시적 후퇴시기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적개심과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선전선동을 진행해 나갔다.

북한은 각급 선전선동망과 출판물, 예술 단체 및 작가 등을 동원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선전선동활동을 조직, 실시하였다. 특히 마을에 나타나거나 접근하려는 낯선 사람들, 예를 들어 고아, 전재민, 심지어 군인에 대해서도 우려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마을을 떠날 때까지 감시하는 등 정치적 경각성을 높여 나갔다. 반간첩투쟁과 자위대 사업은 후방 농촌지역에 침입하는 남한 및 미군 스파이들을 적발하여 교란작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⁴²⁾

140) 전쟁기 로동신문에서는 농촌 자위대, 인민 자위대, 자위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세한 차이와 규모, 활동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141) “인민들의 혁명적 경각성 제고에 노력-신천군 ○○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일.

142)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농촌에서 대중정치문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5일.

남한과 유엔군은 이북 후방 지역에 간첩, 파괴분자들을 공중 낙하, 해안 및 산악지역을 통해 잠입하여 군사기밀을 정탐하고 살인, 방화, 약탈, 폭격 유도 표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암해 공작을 펴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¹⁴³⁾ 예를 들어, 1952년 여름 황해도 신천군 내 ○○부락¹⁴⁴⁾에서 우물에 독약을 타려던 소년이 체포되었다. 리 자위대는 체포된 소년을 심문하여 개성에서 파견된 일당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대 주둔 지역들의 우물과 음식물에 독약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반간첩투쟁과 자위대 사업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952년 1년 간 밀정이라고 완연히 판명된 자 혹은 수상하다고 인정된 자들을 합하여 12명을 자위대 손으로 적발,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넘겼고 산에 은신하고 있던 간첩 10여 명을 자수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⁴⁵⁾

이 지역 민주선전실장은 후방지역에 침투한 스파이들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 계층별로 독보회, 좌담회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켰다. 그는 로동신문과 기타 출판물에 발표되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스파이들의 주요 목적, 이들을 돕는 공범자들의 술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제강을 작성하여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을 체포한 경험이 있는 주민 유계초, 여남순을 중심으로 그 경험을 교환하는 좌담회를 조직하여 그들의 경험을 보편화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갔다.¹⁴⁶⁾

전쟁기 현재 38도선 인근 지역은 전선이 요동쳐 며칠 사이에

143) “반간첩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 『로동신문』, 1953년 2월 2일.

144) 본문 내 ○○ 표시는 로동신문 원문의 표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 당시 북한은 모범 민주선전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해당 지역과 실장의 이름을 기명으로 거론하며 적극 홍보하였지만 기사의 내용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해 부락명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5) “인민들의 혁명적 경각성 제고에 노력-신천군 ○○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3년 2월 2일.

146) 위의 신문, 1953년 2월 2일.

도 주인이 몇 차례씩 뒤바뀌는 등 농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남북 정부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농촌지역에서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적과 아를 구분하여 전개된 반간첩투쟁과 자위대 사업은 자신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 공민이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반간첩투쟁과 자위대 사업은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전쟁을 국가뿐만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전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5. 맺음말

우리 집, 마을 농민을 교양하는 학교, 친근한 벗, 훌륭한 교양자 이러한 수식어들은 전쟁기 농민들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며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민주선전실과 실장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¹⁴⁷⁾ 전쟁기 북한은 선전선동을 통해 지방 정치를 관장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전쟁기 국군, 유엔군으로부터 재점령 당하거나 고립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일성, 당, 정부를 대신해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리더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은 전쟁기 김일성, 당과 정부 역할의 정치적 대행체였다. 민주선전실장의 나태와 직무유기를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 위반으로 취급하고 반인민적 범죄행위로 규정¹⁴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47) “모범 민주선전실장-전병환 동무,” 『로동신문』, 1953년 12월 7일.

148)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전쟁기 북한의 선전선동을 통한 정치사상 교육은 전쟁 수행과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정치사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전쟁기 선전선동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이고 조선로동당이였다. 북한은 인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주선전실을 통해 전쟁 초기 무너진 김일성의 권위 회복과 무너진 경제, 사회적 기반 즉 생산성을 강조하였다.

전쟁기 북한의 선전선동은 사회주의는 승리한다는 신심을 통해 인민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우세한 화력은 북한체제의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파괴하였지만 북한 인민들을 파괴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분명 선전대상과 그들과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공감과 설득을 통해 김일성과 북한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시도였다. 한국전쟁은 북한에게 선전선동의 전쟁이었던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의 교육과 동원은 농촌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공민이라는 정체성과 체제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은 교육과 동원을 통해 서로의 가정 형편을 일상적인 마을 관심사로 설정함으로써 어려운 일은 적극 나서서 도와주며 허물없이 지내는 화목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였다. 민주선전실은 전쟁의 공포와 체제 붕괴의 위기 속에서 농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민주선전실은 ‘기억의 정치공간’이지만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전선동은 여전히 호소력 짙은 유효한 개념이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이 어떻게 인민들 속에 들어가고, 인민들은 선전선동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선전선동을 통한 북한체제 운영 연구의 기초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원고투고일: 2017.4.5, 심사수정일: 2017.5.20,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민주선전실, 민주선전실장, 선동원, 선전선동, 한국전쟁, 김일성,
조선로동당, 교육, 동원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Education and
Mobilization of North Korea's Propaganda Office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Kim, Sang-Bum

The goal of this paper is how the D.P.R.K.(North Korea) exploited its propaganda to prevent from collapsing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propaganda offices for the maintenance of regime during the war.

This office was a crucial(core) parts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cover and reestablish political and economic strength in the rural regions. To solidify its political and agricultural authority, the regime relied on political-ideological public education and the mobilization of war resources.

The Korean War was the war of propaganda to North Korea and the offices played a key role in turing 'soldier's war'into 'people's war'.

Keywords : Propaganda Office, Director of Propaganda Office, Propagandists, Propaganda, The Korean War, Kim Il-su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Education, Mobilization

